

[십시일반 기본소득 기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 헤린님은 '화제의 인물: 김소연(자우)'에서 소개된 '십시일반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번 코너를 통해 십시일반 기본소득 기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시일반 기본소득의 경험이 곧 '기본소득과 나'를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혜린

십시일반 기본소득 참여자

지푸라기가 되어주신 당신들께,

처음에는 민망하고 겸연쩍었습니다. 어떤 윤리적 의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쓸 줄 알고 보내주시는 걸까?' 얼마 전 절에서 삼천 배를 했습니다. 제주 비자림로에서 베어지는 삼나무를 만나고 난 뒤였습니다. 일백 배를 할 때마다 외는 부처님들을 나무라고 생각하면서 절을 했습니다. 일천 배를 마쳤을 때, 주변에 계시던 보살님들께서 다가와 절을 하고 나서 어떻게 몸을 살피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찬 물에 무릎과 발을 담궈라, 이 매트를 쓰면 올라올 때 더 쉽다...' 점심을 먹고 다시 돌아와 절을 하기 시작했을 때, 문득 보살님들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알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 그러다 문득 간절히 기도하는 이를 보면, 그 기도가 무엇이든 돕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존재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삼천 배를 한다는 건, 사랑과 연민의 의지가 아니고서야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목격한 이들이 스스로 그 사랑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사랑의 힘이고 우리의 본질이구나. 그렇게 비자림로의 삼나무들, 도살장의 돼지들 닭들 소들, 수조 속 물살이들 그 부처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 보살님들도 이미 함께 기도해주고 계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ですよ. 저도 어떤 간절한 기도(직접행동)를 보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여러분이 저를 지원해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연결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무얼 기도하던 함께 기도해주고픈 마음,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함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런 응원과 든든함을 일 년간 느꼈습니다.

‘자격’에 대해 자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소개 글을 쓰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어떤 전시를 했고 어디서 강연을 했고… 그런 것을 적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일부일 뿐인데, 왜 이것을 나라고 소개할까. 일부가 절단되고 숨겨지고 꾸며진 모습으로 나를 소개한다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작년 모처에서 이력을 ‘있는 대로 많이’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력서를 작성했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예롭고 의롭고 깨끗한 모습의 나만을 끌어 모아야만 ‘강사’, ‘패널’, ‘작가’의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즐릴하고 짜질하고 더러운 나는 인정받을 수 없는, 그 편협한 자격성이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회는 존재의 일부만 드러내기를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활짝 웃는 모습의 나에게만 프로필 사진 자격을 부여하는 SNS처럼요. 전시한 적 있지만 정신질환도 있었던, 강의한 적 있지만 성노동도 했던, 의로운 구호를 외치지만 때로는 가해자였고 피해자였으며 또는 그 어떤 위치도 아니었던… 그런 양면성을, 온전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 또한 ‘일부의 나’만을 노출하고 광고하는 것이 일을 얻고 돈을 버는 데 용이했습니다. 그러나 존재는 필연적으로 경계자여서 사회가 정한 기준들에 이리저리 비쪽 벗어나고는 합니다. 활동을 하며 자격 미달, 비효율, 불법이라는 이름을 자긍심으로 여길 수 있었고, 잘못된 기준은 있어도 잘못된 존재는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계를 위해 사회에서 허용된 모습을 연기했고 여전히 효율적인 존재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금지된 애도를 하고, 불법적 연대를 하고, 더러운 존재로 남겠다고 현장에서 말했지만, 일터로 돌아갈 때에는 ‘정상인’의 모습을 흉내 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지원사업으로 활동과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럴 듯한 제목과 그럴 듯한 명분의 행사를 기획하고, 협소한 틀의 사업계획서에 자격을 증명해야만 사업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한 단체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정작 예상치 못한 일상적 사건이 생겼을 때 여전히 부족한 예산으로 애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천만 원의 예산이 있어도 보이는 행사에만 사용해야 하고, 보이지 않는 일상적 지원은 모두 전전긍긍 십시일반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 그렇게 생계 벌이나 존재로서의 일상적 생존 예산은 따로 마련해야 하는 모습을 보며 허망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은 사업계획서를 따라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기 위해 ‘자격 있는’ 존재로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것… 그것은 마치 ‘희생자’가 되어도 ‘무고’해야 하고 ‘동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쯤의 미덕

이 있어야만 그 대우를 받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자격, 사회가 존재에게 요구하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저 살아가고 싶기도 합니다. 숨 쉬고, 밥 먹고, 일기 쓰고, 산책 하며 하늘도 보는… 그게 전부일 때가, 그게 지극히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저에겐 작년이 그랬습니다. 자격을 증명하는 일도, 나를 광고하는 일에도 지쳤던 때입니다. 현대 사회의 노동은 많은 경우 그의 존엄을 소득과 맞바꾸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존재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엔 어떤 자격도 거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자신을 ‘판매’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소득이나 자원을 사회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그 시간을 취업하면, 휴가하면, 퇴직하면… 으로 유보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불안감을 주입합니다. 나를 매력적인 상품으로 포장하여 스스로를 잘 판매하는 것을 ‘자기 구실’이라 말합니다. 남들을 결눈질하고 비교하면서 불안하게 하여 자본을 추구하게 합니다. 많어도 불안하고 적어도 불안합니다. 그래야 그를 자본의 노예이자 부품으로 착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면 착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본은 자신을 판매하는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악’으로 여깁니다. 백수, 게으른, 속 편한, 젊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이름표를 붙이면서요. 자본이 자격의 기준입니다.

일 년의 기본소득을 받으며, 누구나 이런 일 년을 경험한다면 세상이 많이 바뀔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에 50만원, 큰돈은 아니지만 제겐 충분했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자마자 억지로 하던 생계 일을 그만두었고, 나를 돌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활동에도 휴지기를 가지게 되면서 ‘활동가로서의 나를 지원한 것 일 텐데 활동하는 모습을 SNS에 더 보여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담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일종의 ‘판매’이자 거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또 ‘활동가 헤린’이 아닌 ‘존재 헤린’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거라는 자우(‘십시일반 기본소득’ 기획자)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상품으로서의 나에서 벗어나 존재로서 스스로를 존중했던 시간입니다.

1년 간 생계를 걱정 않고 나누고 관계 맺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까 고민하는 대신에 어떻게 돌려줄까 고민했습니다. 오롯이 주고 오롯이 받음으로써 서로에게 돌봄과 치유가 일어나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받는 존재인 저에게도 치유가 일어났지만, 주는 이들 또한 그 자체로 치유 받을 수 있음에 기쁘고 놀라웠습니다. 살아가는 데

에는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다는, 그저 '존재함'으로 환대받고 부양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아주 당연하지만 '실험'인 일을 함께하면서 우리 존재의 신성함을 목격했습니다.

작년 생태마을디자인교육에서 선물경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때 이런 것을 메모했습니다. “받으면 돌려주어야 한다는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받기’에 미숙한 사회” “무언가를 받을 때 ‘괜찮아요’ 거절하는 것은 보답의 의무가 두려워서, ‘날 칭찬하지 마’, ‘내게 선물하지 마’ 한다.” 기본소득을 경험하기 이전의 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존재들의 연대를 말하면서도 기대기를 두려워했고, 돌봄에 대해 말하면서도 의지하기를 겁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돌봄과 나눔이 우리의 본질임을, 다름 아닌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는 걸 일 년을 보내며 알았습니다. “온전히 받고 기꺼이 신세지고 다시 돌려주고 그 이상 돌려주는 것이 삶이고 우주”임을 배웠습니다. 서로에 대한 의무와 연결 없는, 더치 페이하는 지급과 자립 같은 건 없다는 걸, 나의 존재는 이미 ‘받기’를 전제로 한 삶임을...

언젠가 지푸라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어느 날 절벽 가까이로 밀려났을 때, 잡을 지푸라기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운이 좋아 그 지푸라기를 만났지만, 그것이 운에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지푸라기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럴 때 제가 하나의 지푸라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존재를 선물 받은 일 년이었습니니다. '존재 헤린'에게 기꺼이 먼저 손 내밀어 준 자우에게, 그 손을 쥐고 엮어 일 년을 만들어 준, 저의 지푸라기가 되어주신 당신들께, 마음으로 함께하고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그 최초의 연민과 사랑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일 년이었습니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한 해를 보내고 있을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연결을 만들어 나가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들이 몹시도 궁금하고,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함께 기도하는 데에 자격이 필요하지 않고, 선물하는 마음에 자격이 필요하지 않듯이, 존재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데에는 그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어느 존재라도, 살아있는 것만으로 축복 받고 돌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존재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리듬으로 숨을 쉬고 어떤 걸음걸이를 가졌든, 당신의 모든 경험을 응원합니다. 온전한 빛과 사랑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제게 그러했던 것처럼요.